

美 재무 “인플레이 내년까지 지속 안해”

옐런 장관 “필요시 연준 나설 것” “인프라 예산, 생산성 키울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옐런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수그러들면서 “가격 상승은 평탄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2%에 가까운 물가상승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더 많은 사람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소비자 수요도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 상품 가격과 임금의 상승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됐던 것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높은 물가 상승세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에 박혔기 때문”이라며 “지금 그런 일은 없으며 연준도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이날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경제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승인한 인프라 예산법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 안전망 및 기후변화 예산이 미국 생산성과 노동력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나는 이들 법률안의 통과가 우리의 생산성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지표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이 많은 미국인 엄마들을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부자들이 빚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내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세수를 4000억 달러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의 세제 허점만 막아도 4000억 달러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며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 누진세를 적용하면 200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개월만에 국제관광객 맞은 뉴욕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헤럴드 스퀘어 인근 도로에서 관광객들이 투어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개월만에 처음으로 뉴욕은 국제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기시다와 불화설’ 아베, 파벌 정치 전면에 나선다

자민당 최대 호소다파 회장 취임 정치적 영향력 확대 도모할 듯

최장기 재임 기록을 보유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막후 정치를 끝내고 무대 전면에 나선다. 아베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으로 취임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물밑에서 움직이던 아베가 내놓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호소다파는 지난 9일 옐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베 전 총리에게 호소다 히로유키 회장의 후임으로 취임해 파벌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아베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취임하면서 호소다파의 전신인 마치무라파를 탈퇴한 지 약 9년 만에 파벌로 복귀하게 된다. 그는 총리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호소다파의 지주 역할을 했는데 한층 영향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예전에 호소다파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무파벌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아베의 회장 취임을 계기로 파벌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는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를 지원했다.

국회의원 87명(요미우리·아사히신문 집계 기준)을 회원으로 둔 호소다파는 자민당 중·좌파의원의 약 4분의 1을 점한다. 당내 2위인 아소파(48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세력이다.

결국 자민당 전반에 대한 아베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절반 남짓을 점하는 4선 이하 의원 중 다수가 아베 총재 시절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른바 ‘아베 키즈’인 점도 그가 구심력을 유지하는 비결로 꼽힌다.

호소다파 중의원 의장으로 내정된 것이 작년 9월 총리 퇴임 후 러브콜에도 무파벌 상태를 유지하던 아베가 복귀하는 표면적인 계기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불만이 아베의 파벌 복귀를 앞당긴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가 추천한 하기우다 고이치(현 경제산업성)가 자민당 간사장 혹은 관방장관에 임명되지 않았고 각료나 당 요직에 호소다파가 전보다 적게 임명됐다면서 아베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그의 불만에 주목했다. /연합뉴스

4억7200만원에 팔린 애플 최초의 PC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매회사 존 모던 옥서니어가 9일(현지시간) 주최한 경매 행사에서 40만 달러(4억7200만원)에 팔린 애플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채피 칼리지 애플-1.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45년 전 수작업을 통해 제작한 것이다. 낙찰 가격은 당초 예상한 60만 달러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노조 결성 투표 앞두고 스타벅스·직원 기싸움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첫 노동조합 설립 여부가 달린 투표를 앞두고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과 회사 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스타벅스가 전날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투표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NLRB는 뉴욕주(州) 버펄로에 위치한 3개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NLRB는 3개 매장을 각각 별도의 사업체

로 간주했다. 3개 매장 중 어느 한 매장이라도 노조 설립 찬성이 많을 경우 그 매장에 노조가 설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3개 매장 직원의 투표를 합산해 노조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뉴욕주 NLRB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워싱턴DC에 위치한 NLRB 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NYT는 스타벅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정, 문민정부 인사에 징역 75·90년

내달 첫 선고 수치 중형 예고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법원이 문민정부 주요 인사 2명에게 징역 75년과 90년을 각각 선고했다. 쿠데타 직후 가택연금 된 이후 11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임을 시사하는 ‘예고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 등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전날 카렌주 수석장관이었

던 난 킵웨 민(67)에게 징역 7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카렌주 재무장관이었던 딘 나잉(65)에게는 무려 징역 90년형을 내렸다.

민 전 수석장관과 나잉 전 장관에 대해 군부는 부패 혐의를 포함해 각각 5개와 6개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각각의 혐의당 15년형이 선고된 셈이다.

민 전 수석장관은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중앙집행위원이라고 이라와디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이번엔 인종·정치 타깃광고 금지

페이스북이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내년 1월 19일부터 정치, 인종, 건강, 종교,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세부적인 맞춤형 광고 옵션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광고주들이 ‘세계 당뇨병의 날’, ‘LGBT 문화’, ‘유대인 명절’ 등과 같은 카테고리를 지정해 광고할 수 없게 한다는 의미다.

단, 광고주들은 여전히 위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고객 목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정치 광고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페이스북은 자사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같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맞춤형 광

고가 일부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이번 결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크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정치 광고가 2020년 전체 매출의 0.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논란이 되는 정치 광고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는 기업뿐 아니라 정치인과 사회단체도 활용하고 있다. 트위터가 2019년에 정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다른 소셜 미디어들은 정치 광고에 선을 그었으나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에 방관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